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403.6	16.4	121,500	-2.8	-5.1	-14.7	26.6	84.7	40.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140.1	21.7	377,000	-3.6	-13.7	-15.3	-1.0	5.1	4.2	0.7	0.6	14.1	14.7
현대알렉스틱	877.7	4.6	86,000	-3.8	-8.4	0.4	-24.6	8.2	7.1	0.7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04.9	8.4	162,500	-1.5	-10.5	-12.6	-3.8	10.3	7.6	1.1	1.0	11.7	13.9
삼성중공업	4,731.3	17.3	7,510	-1.6	-6.0	-8.0	16.1	47.4	23.5	0.5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851.7	4.8	26,600	-1.8	2.7	-1.7	91.4	8.0	11.1	0.8	0.7	10.7	7.0
현대미포조선	1,814.0	9.9	90,700	-2.1	-9.3	-15.2	15.2	19.6	14.1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56.9	6.6	3,365	0.1	-4.7	0.0	1.7	67.7	16.9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163.9	21.9	116,500	-4.9	4.5	48.2	114.2	20.6	20.0	2.8	2.5	14.6	13.3
두산밥캣	3,408.5	26.7	34,000	-0.9	4.5	7.1	-5.0	12.5	11.7	1.0	0.9	7.4	7.6
현대로템	3,111.0	8.3	36,600	-3.6	6.6	128.0	95.2	47.2	32.2	2.1	2.0	4.5	6.3
하이록코리아	401.6	49.3	29,500	1.7	4.6	21.1	31.1	13.4	12.2	1.1	1.1	8.8	9.0
성광밴드	364.7	17.5	12,750	-1.9	-4.9	5.4	27.8	1,127.1	45.7	0.8	0.8	0.1	1.8
태광	363.1	12.5	13,700	1.9	-3.5	-7.1	13.7	81.8	39.9	0.9	0.8	1.0	2.1
두산중공업	1,985.6	11.8	18,650	-1.6	-3.9	23.9	21.5	20.3	11.7	0.6	0.6	3.6	5.4
두산인프라코어	2,164.8	15.8	10,400	-1.9	-4.1	16.1	19.7	7.4	6.8	1.1	1.0	16.0	15.1
두산엔진	496.9	4.5	7,150	0.0	N/A	N/A	94.0	-25.1	-39.6	1.0	1.0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4,522.8	14.9	46,400	-2.7	7.9	-3.8	-2.2	35.5	26.3	3.6	3.2	10.3	12.9
한화테크윈	1,685.8	12.4	32,050	0.6	10.1	133	-9.8	38.1	21.1	0.8	0.7	2.0	3.4
LIG넥스원	1,144.0	9.2	52,000	-1.7	17.9	153	-13.0	22.5	152	1.8	1.6	8.6	11.4
태웅	364.1	4.7	18,200	-1.4	-15.5	-10.3	-5.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76.2	4.6	6,530	0.9	0.5	-25.6	29.3	-48.0	68.7	2.1	2.0	-4.3	3.1
한국카본	271.7	13.7	6,180	-1.3	-2.5	-16.3	15.3	33.7	17.5	0.8	0.8	2.5	4.7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8p, 중고선가 지수 100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8p, 중고선가 지수는 100p로 전주와 동일함. 대우조선해양은 Alpha Gas가 보유한 17.3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함. 인도는 2021년 1분기로 예정됨. 현대미포조선은 팬오션에서 1,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19년 4분기임. (Clarksons)

현대오일뱅크 IPO, 예상청구 일정 연기

IB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상장 예비심사에 앞서 지난달로 예정된 한국거래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알려짐. 이는 SK루브리컨츠의 상장실패와 삼성바이오파트너스의 회계이슈로 예상 일정을 늦춘 것으로 파악됨. 이를 대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최종 상장일자는 지킬 전망임. (더밸)

ONE asking shippers for bunker surcharge

일본 컨테이너선 K-Line, MOL, NYK가 웅친 'ONE' Alliance는 올해 병커유 가격이 25% 이상 증가해, 운임에 병커유 할증료를 부과할 계획임. ONE Alliance는 Maersk, MSC, CMA CGM 등 메이저 선사와 함께 병커유 할증료를 부과해, 병커유 할증료 부과가 산업 전반의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음. (TradeWinds)

대우조선노조, 산별노조 전환…조합원 투표 71.3% 찬성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71.3% 찬성을 얻어 산별노조 전환 안건을 가결시킴. 노조는 향후 절차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할 예정임. 산별노조는 특정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개별 기업 노조에 비해 사측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짐. (뉴스1)

대우조선, 그리스서 LNG운반선 1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Alpha Gas에서 17.3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함. 이는 지난 3월 계약한 선박의 융선분으로 알려짐. 또한 해외선주로부터 VLCC 2척도 수주했고, 수주한 총 3척의 계약선가는 3.7억달러로 알려짐. LNG선은 2021년 상반기, VLCC는 2020년 1분기에 인도될 예정임. (EBN)

Africa rig count rises on deep-water work

Baker Hughes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에서 시추장비 가동이 증가하며, 심해 시추시장 활동의 초기 반등을 보였다고 알려짐. 2017년 초 9개의 시추장비 가동 대비, 올해 5월에 17개의 시추장비가 가동되며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최근 오일메이저의 매장량 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진행됨. (Upstream)

Mitsubishi Shipbuilding eyes European partner after Cosco link-up

일본 Mitsubishi 조선은 불황에 대응해 유럽 조선소와 협력해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계획한다고 알려짐. 협력은 내년 봄으로 계획하며, 유럽계 파트너와 미팅을 진행한다고 알려짐. 최근 포시도니아에서 Mitsubishi는 중국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와 함께 스크류버 개조 사업에 협력함. (TradeWinds)

두산엔진, 재무적 융통성 소멸…신용등급 BBB로 강등

나이스신용평가는 9일 두산엔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함. 이번 하향조정은 최근 인적분할과 매각이 완료되면 두산밥캣 주식을 활용한 재무적 융통성이 소멸된 점을 등급평가에 반영했다고 알려짐. 분할 후 두산엔진은 엔진사업 영위에 관련한 대부분 차입금을 부담한다고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